

/지역 단신/

### 외국인 주부 적응 프로그램 개설

새마을운동 영광군지회(지회장 김원관)에서는 지난 7일부터 오는 12월7일까지 3개월간 농어촌 외국인 주부 한국적응 프로그램인 'I Love Korea'를 개설했다.

'I Love Korea'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 우리 전통 문화·풍속을 익히게 함으로써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지역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영광종합병원에서는 80여명에 달하는 영광지역 외국인 주부들에게 전액 무료건강검진을 해줄 예정이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 장성 농민 55명 해외연수 추진

장성군이 부자 농촌을 만들기 위해 3개 분야 농민 55명의 해외 연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농산물유통분야 17명은 11일부터 9박10일 일정으로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독일을 둘러볼 예정이며 친환경농업 분야 19명과 축산분야 19명은 19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에 갈 예정이다.

농산물유통분야는 주로 대형유통시설과 주말농장, 포도산지 등을 견학하게 되며 친환경농업분야는 후쿠오카, 홋카이 지역을 축산분야는 미야자키, 가고시마 지역의 축산시험장과 오·폐수 시설을 둘러볼 예정이다. /장성=고재민기자 jbg@

### 공동혁신도시 부지 인구 늘어

보상 노린 위장 전입 많아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가 들어서 는 나주시 금천면과 산포면 인구가 전반적인 농촌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가 최근 주민등록 전·출입 조사를 한 결과 8월말 현재 금천면 인구는 6천552명으로 혁신도시 지구지정 발표 시점인 지난해 10월 6천382명보다 170명 늘었다.

특히 지구지정 발표 뒤 2개월만에 무려 155명이 늘어난 뒤 완만하게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 2003년말 6천780명에서 2004년 6천536명 등 금천지역 인구가 매년 200명 넘게 감소했던 점을 감안하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또 금천면과 인접한 산포지역도 증가세로 반전, 지난해 10월 4천723명에서 8월말 4천818명으로 95명이 늘었다. 이는 혁신도시 건설이 확정되면서 빈집 등을 구입한 뒤 전입했거나 보상 등을 노린 위장 전입 등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 “장흥법원·검찰 관할구역 재조정”

### 보성주민들 7월부터 서명운동 전개

#### “순천지원보다 가깝고 재판기간 단축”

광주지법 장흥지원과 광주지검 장흥지청 관할구역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장흥은 물론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보성지역 주민들은 지난 7월부터 현재의 순천지원 관할권을 장흥지원으로 옮겨 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거리상으로 순천(52km)에 비해 장흥(14km)이 더 가까운데다 장흥지원은 재판이 1개월 이내에 열리는 데 반해 순천은 2~3개월이 소요돼 신속

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라도 관할 구역조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로스쿨을 도입하고 변호사 정원을 아무리 늘려도 장흥지역 법조수요가 늘지 않는 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지역인 장흥군에서 개입할 변호사를 찾기 힘들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장흥지원은 한때 6개 군을 관할했으나 1983년 해남지원이 개설되면서 관할구역이 축소된데다 농촌지역 인구감

소로 법조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현재 장흥지원과 지청에서 연간 처리하는 민·형사 사건은 1천300여건으로 전국 지청 가운데 가장 적은 실정이다.

지난 1990년대 후반에도 장흥과 보성지역을 중심으로 장흥지원 관할구역 재조정 문제가 제기됐으나 정치권과 법조계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흐지부지 된 바 있다.

지역주민들은 “선거관리위원장을 해당 지원관사가 맡는 현행 제도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역과 법원 관할구역이 동일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선거구가 같은데도 관할 지원이 다른 영암도 장흥 지원 관할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 지리산권 자치단체 화합 체육대회

지리산을 끼고 있는 전남과 전북, 경남 등 3개 도 7개 시·군이 곡성에서 제 3회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를 갖고 영호남의 화합을 다졌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 고창 북분자주 ‘운우’ 혁신포럼 건배주 선정

고창 북분자주가 6일 행정자치부와 유엔경제사회국(UN-DESA) 공동주최로 열린 ‘정부혁신 아시아지역포럼’ 만찬 공식 건배주로 선정됐다.

고창군은 고창 선운당(대표 김성규)에서 생산하는 북분자주 ‘운우’가 UN 사무차장을 비롯 아시아지역 각계 주요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포럼만찬에 건배주로 올라 북분자주 세계화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창=김준원기자 jwkim@



### 무장향교 ‘기로운’

전북 고창군 무장향교 유생들이 7일 유림과 70세 이상의 노인들을 초청해 기로운(耆老宴)을 베풀고 있다. 기로운은 조선시대 임금이나 지방수령이 문배비사를 지낸 70살 이상의 노인을 초청해 베푼 연회로 무장향교는 그 뜻을 받들어 베풀다 지역민들을 위한 잔치를 연다. /고창=김준원기자 jwkim@

### 완도 수산고 인재 양성 산실 거둬낸다

#### ‘해양계 특수목적고’ 지정 학비·기숙사비 국고 지원

완도 수산고등학교(교장 선병오·사진)가 최근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수산해양계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승인 받음에 따라 수산 인재 육성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특목고 지정에 따라 완도수산고는 오는 2007년부터 신입생 모집단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1인당 학과별 200여만원까지 수업료를 포함한 학비 전액과 기숙사비, 급식비(중식) 80%가 국비지원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앞으로 특수목적고로 개편되면 기존학과를 포함한 탄력적인 교육과정 편성이 용이하도록 다양한 전공과목(자연수산경영, 식품조리학



과, 수산유통정보, 해양운항, 해양조선, 해양에너지)이 신설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전공선택의 폭이 넓어져 자신의 적성에 적합한 분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비전을 갖게 된다.

선병오 교장은 “대부분 지방에서 인문고를 선호해 실업고가 쇠퇴된 현실을 감안, 전문인력 배출을 위한 수산 특수목적고 개편이 절실하다고 보고 교육청에 강력히 건의해 성과를 이루었다”며 “앞으로 해양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훌륭한 수산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산실로 탐바꿈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 새얼굴

#### “미래사회 선도할 인재육성”

##### 김치국 영암교육장

“풍부한 인간성 함양과 창의력 배양, 개성 신장 등 자율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키우는 학교교육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신임 김치국(60) 영암교육장은 “미래 사회를 선도할 차세대 유능한 인재 육성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목표 태생인 김 교육장은 목표교대를 졸업하고 지난 67년 신안 안좌초등 교사로 교직을 시작, 전남도 교육청 장학사와 탐양교육장 등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양인순 여사와 1남1녀. 취미는 독서와 등산. /영암=김현민기자 hnkim@



#### “창의력 높이는 교육 펴겠다”

##### 박성순 장성교육장

“문항 장성인의 자긍심을 함양하고, 지역발전과 화교를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신임 박성순(58) 장성교육장은 “학생들의 창의력을 높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출신인 박 교육장은 전남대를 졸업했으며, 완도·보성교육청장학사, 전남도교육청 장학사, 여천 실업고 교장, 전남도교육청 과학실업교육과장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박금자(56)씨와 1남 3녀. 취미는 바둑. /장성=고재민기자 jbg@



## 화순 보호수 고사위기

#### 동면·동북 일대 관리소율 수백년된 팽나무 등 말라죽어

화순군내 수백년된 보호수가 관리소율로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

화순군은 1989년 화순군 조례를 만들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7조에 의거해 보존가치가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 1천164그루를 보호수로 지정했다.

보호수로 지정돼 관리대상인 수종은 느티나무, 소나무, 은행나무, 푸조, 팽나무, 서어, 이팝, 양버들 등이다. 팽나무와 느티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화순 동면 언도리 군유지에

는 몇년 전부터 나무들이 고사하고 있지만 이를 방치해 왔다는 것.

화순군은 올해서야 외과수술 등 관리에 나서 보호수 관리가 ‘뒷방 행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동북 연순술에도 나무들이 말라죽어가고 있으나 관리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군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고목이 많아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나무 노화로 인해 고사하는 경우가 있어 행정력을 총 동원해 철저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 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신동제약주식회사**

## 활기찬 하루, 건강한 인생!

# 닥터큐텐

열심히 뛰는 사람들 곁엔 닥터큐텐이 있습니다.

Vitamin C  
Vitamin E

60Capsule

코엔자임Q10 항산화제 비타민 무기질 복합 처방

# Q10

## 닥터큐텐

연질캡슐

신동제약주식회사

**코엔자임Q10이란?**

코엔자임Q10은 중산회 성분으로 활성산소를 안정시켜 신장에 나쁜영향을 줄수 있는 활성산소의 제거 및-결핍을 예방하고 우리 몸의 미나지 항산화 물질은 중요한 체내 효소소-신체에 있는 각종 항산화 비타민(Vit. A, C, E)의 생체이용률을 높여 줍니다. 특히 40세 이후에는 그 양과 활력이 줄어들어 오 부터부터와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닥터큐텐은 이런분께 좋습니다.**

- 질병 예방 및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 활력순환장애가 있거나 손발이 차고 저리신 분
- 어깨, 목덜미가 아픈 분
-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

코엔자임Q10 & 항산화제

## 닥터큐텐

연질캡슐

소비자상담전화 080-200-9101

**효능-효과**  
아름답게 나이만 느리게 늙고, 체력도, 인내·수용력, 병후 회복력도, 노년, 저혈압, 수면장애, 당뇨, 동맥경, 비만, 고지혈증, 만성피로 등에 효과가 있습니다.

**심도**  
코엔자임Q10, 비타민C, 비타민E, 미나지, 오메가-3, 당근유

\*반드시 의사·약사님 상의하시고 '지용성'·'수용성' 및 '유기물'을 꼭 읽으신 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